

말라기 강해 (6)

여호와께서 변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십일조로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말 3:6-12

“당신 변했어” “당신 바뀌었어” 하는 말을 친구에게서 들으면 어떻게겠습니까? “당신은 변덕쟁이다. 당신은 말을 바꾼다.” 혹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를 조금 바꾸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변했다”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한 말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힘에 넘치게 사랑을 보여주었는데도 사소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녀가 “부모님 바뀌었어요!”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겠습니까? 그런 말이라도 하면 나은 편입니다. 입을 꼭 다물고서 다른 데만 보고 있어서 부모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자녀에게 부드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왜 그래요” 하면서 강하게 쏘아붙인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니 그렇게 강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변덕쟁이인 당신에게 있고, 그 문제가 풀어지기 전에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라기 3장에는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바뀌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라기의 맥락에서 보면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이미 네 차례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의 말씀을 받지 않고 튕겨냈습니다. 언약과 관련하여 세 번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와 관련하여 레위의 언약을 어긴 것을 지적하시고, 이혼과 관련하여서는 혼인의 언약을 어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뜻을 보여 주셨습니다. 두 가지 언약을 어긴 그들의 문제를 풀어 주실 언약의 사자를 약속하였으나 이 초청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침묵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변덕쟁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거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보여 주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떠났다고 지적하시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지요?” 하면서 반문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십일조로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십일조를 드리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을 허락하시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봅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변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십일조로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라기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 변하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는 계속하여 야곱 자손을 부르십니다 (3:6-7)

6 나 여호와와 변하지 않으니

야곱 자손아, 그래서 너희가 멸망되지 않았다.

7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나의 규례를 떠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지요?” 하고 말한다.

1) 여호와와는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음

여호와께서 바뀌지 않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상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지금은 여호와가 변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놓고서 불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이 바뀌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계속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부르신 것은 여호와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변함이 없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소멸되지 않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의 말씀을 바꾸시면 그 언약이 깨질 것이지만(시 89:34), 하나님께서는 열조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멸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신 4:31).

2)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율례를 떠남

불변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나의 규례’ 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도 처음부터 여호와의 규례를 떠났고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십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처음부터 여호와의 규례를 어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여호와와는 불변하는 사랑을 보이셨으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않으면서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3) 돌아오라는 초청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 -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지요?”

처음부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참조. 속 1:3). 때로는 언약의 저주를 내리면서, 때로는 예언자를 보내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온다’ 는 말은 회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리신 것처럼,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변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돌아가나요?” 하는 식으로 반문하며 거절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떠났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를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왜’ 회개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알려고 겸손히 묻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말투입니다. 자기들은 변하지 않았고 여호와가 변하였으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여호와께 있다는 식으로 고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변의 사랑을 보이시는 여호와의 태도는 더 놀랍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다 쏟아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이유와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야곱을 선택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하여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2. 거짓을 행하는 온 나라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3:8-9)

8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¹⁾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속입니까?” 하니
 바로 십일조와 예물이 아니냐?
 9 너희 온 나라가²⁾ 나를 속이므로
 너희는 모두 저주를 받고 있다.

1) 회개의 예로서의 십일조 계명

여호와께서 이루실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현재의 삶을 교정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회개를 가르쳐 줄 때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답변해 가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속입니까?” 하는 구절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 앞절과 구문이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율법에 돌아갈 줄을 모르는 것과 십일조 제도를 어기고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면서 한 가지 예로 십일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십일조에 대한 구절은 여호와와 규례의 대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율법의 한 조문을 들어서 전체를 표시하기 때문에 ‘제유법’(提喻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십일조를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말라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아야지 3:8-12만을 떼어서 생각하면 큰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2) 십일조의 의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십니다. 십일조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십일조는 전체를 대표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23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신 14:22-23). 여호와께 십일조를 드리고 가난한 백성과 레위인에게도 주었을 때에 그 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추수하여 얻은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레위인에게도 주었을 때에 그들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것이 그 잔치의 핵심이었습니다. 십일조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서로 나누어 누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외하는 심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1) ‘카바’는 (1) 속이다 (2) 도적질하다/훔치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구약에서 말라기 3장에 4회, 잠언 22:23에 2회 나온다.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사용되는 맥락도 중요하다. ‘도적질하다’가 ‘속이다’는 것보다 더 강한데 이 문맥에서 어떠한 의미가 더 합당한지는 여전히 논란되고 있다.

(2)의 예를 따라서 “하나님을/하나님에게서 도적질하다”(rob God)으로 번역한 예들도 있지만(KJV, NIV, ESV, NET 등), ‘도적질하다’로 옮길 경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의 용례를 따라서 ‘속이다’로 번역한 경우도 많다(LXX, TNK, NJB, NLT 등).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이 부분의 결론이 맺어지는 것을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과 같이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태도를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지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1:8). ‘카바’는 ‘야곱’과 같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발음도 비슷하다. 야곱의 속임을 전제하고서 사용하는 wordplay로 생각된다.

2) ‘나라’는 이방을 의미하는 ‘고이’의 번역이다. 12절에서는 ‘고임’을 이방으로 번역하였다. 9절에서 이스라엘을 ‘고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를 속이는 그들은 실질상 이방과 같기 때문이다. 말라기 예언자는 ‘나라’에 해당하는 말로 이방 나라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고이’를 썼다. 이것은 나라 전체가 이방 나라처럼 되었다는 뜻이다.

둘째, 십일조와 헌물은 레위인의 생활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조문 가운데서 십일조를 택한 것은 레위인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그 당시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18:8, 20-21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22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인에게 십일조와 헌물을 주지 않을 때에 레위인이 생계를 위하여 성전을 떠나고, 그래서 성전의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말라기와 동시대인 느헤미야서를 보면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 하였습니다(느 13:10). 그래서 느헤미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바치게 해서 레위 사람의 생활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선한 일’ 이었습니다(느 13:14).

3) 십일조의 저주와 복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쳐야 될 터인데 그들은 정당하지 않은 제물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의 예배 수준이 낮아지도록 하는 데에 함께 참여하였고, 그들이 여호와와 맺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 레위인들에게는 십일조를 줄 가치가 없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떠하든, 그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레위인에게 십일조를 주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폐지하지 않고 흠이 있는 동물을 그냥 드린 것처럼, 십일조도 규정대로 드리지 않고 조금 드렸으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한 듯합니다. 그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속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뿐 아니라 백성도 모두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나라에 대해서 언약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가뭄과 황충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임하는 언약의 저주입니다(레 26:19; 신 28:22-24).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이 일의 심각함을 알려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들의 죄를 속죄할 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것은 기근이나 외적의 침입으로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일조를 바치지 않아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전의 제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나 이들은 거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3. 십일조로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복되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3:10-12)

- 10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나의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쌀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³⁾ 꾸짖으리니
그것이 너희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고

3) ‘해충’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먹는 자’라는 의미이다. 메뚜기로 번역하기도 하나 더 포괄적으로 해충이라고 옮겼다.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2 그러면 모든 이방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 십일조로 시험함

‘모든 십일조’ 혹은 ‘온전한 십일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이라도 제하거나 떼지 않고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드리고서 전부 드렸다고 말하는 일이나 흠이 있는 것을 드리고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속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일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지만(신 6:16; 마 4:7),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시험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스왕에게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여호와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사 7:11-12).

2)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일조를 바치면, 그들에게 임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리고, 황충과 같은 해충이 추수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늘의 창’ 을 열고 비를 쏟으신 것처럼(창 7:11)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유레가 없는 큰 저주를 내리셨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유레가 없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땅은 소산을 내어 기쁨의 땅이 되고 그들은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땅이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십일조를 먹을 때에 누리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방 사람도 이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민족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작은 순종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돌아온 백성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복을 내려 주시면서 교제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넉넉한 추수의 배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누리는 교제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모든 민족에게 칭송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4.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감

1) 야곱의 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자손’ 이라고 부르시고, ‘야곱’ 과 발음이 비슷한 ‘카바’ (속인 다, 흠친다)라는 단어를 네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에게 십일조로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뱀엘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그는 십일조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켜 주심과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야곱은 20년 후에 돌아왔으나 바로 뱀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뱀엘에서 했던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이 세겟에서 덤나의 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뱀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야 야곱은 비로소 뱀엘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엘뱀엘의 하나님’ 을 부르면서 뱀엘로 올라갔고, 여호와께서는 그

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창 35:10) 하고 압복강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 주셨습니다. ‘야곱’ 을 ‘이스라엘’ 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입니다(창 27:36; 호 12:4; 사 43:27-28). 이것은 에서의 말에서도 확인됩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창 27:36). 야곱은 그대로 두었으면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보존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도 그 말이 반복됩니다. 구약 시대 내내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가 계속되었으나 여호와와는 변함이 없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자를 보낼 것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2)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는 길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시험을 허용하시는 여호와와 태도입니다. 그분은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둘째, 현실적인 문제를 지목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일조로 시험해 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도 여호와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딤후 2:24-25) 하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불변의 사랑을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 주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첫째 논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면서 대들던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랑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에돔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답을 우리가 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함께 구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 주시는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점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때에 헌상으로 초대하신 특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예민하게 대하는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시되 자기를 비운 예수님 안에서 다가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8:9). 자기를 다 비워 변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 주신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칙을 현실적으로 나타내면서 사랑하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의 다섯째 논쟁은 ‘돌아오라’ 는 말로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돌아오면 여호와와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시편 80편에서는 ‘돌이킨다’ 는 말을 세 번 사용하여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80:3)
 만군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80:7)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80:19)

80편은 돌이킨 후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복을 받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시인은 사람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3, 7, 19절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도 점점 길어집니다. “하나님이어” “만군의 하나님이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시인의 간구가 더 간절해지고 깊어집니다. 나도 나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킬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돌이키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 절박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응답송: 시편 80편 1-2, 4절, 간주 8, 10절